

기획특집

제주의 경제가치 확산 방안

-제주도의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상승을 위한 방안-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정수연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관광객의 양적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듯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업종별로 그 호황을 고루 누리지 못하고, 일부업종에만 국한됨으로서 기대했던 것만큼 제주도의 GRDP상승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들어가며

제주도는 2007년부터 개장한 “올레”라는 새로운 관광상품에 힘입어 유례없는 관광호황을 맞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객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4천만명수준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5천만명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6524만명, 그 다음해인 2010년에는 757만명, 2011년 874만명으로 매년 백만명수준의 증가세를 보여, 가까운 시일내에 관광객 천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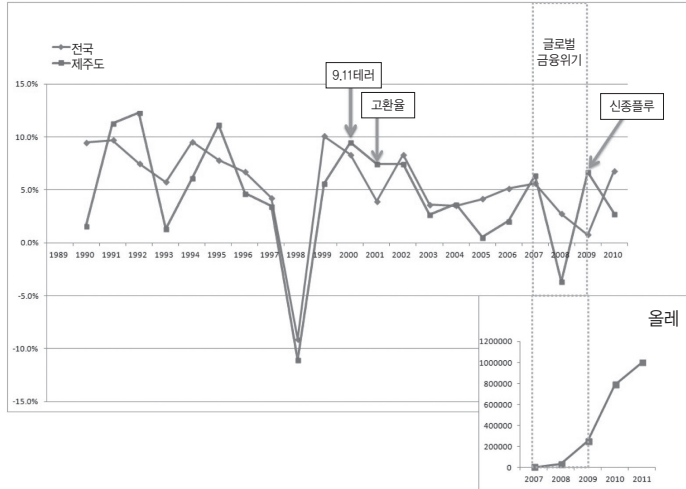
이러한 제주도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은 제주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는 있으나, 제주도 GRDP에 주는 영향은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기대한 바 대로라면, 최근 몇년의 괄목할만한 관광경기상승은 관광과 관련된 다른 여타의 산업에 파급되어, 산업경기도 함께 좋아지고, 도민들의 소득수준도 향상되어야 했지만, 이를 체감하는 도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에 이 글은 현 제주도 경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제주도의 GRDP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기조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2. 제주관광산업의 호황은 왜 GRDP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현재 제주도의 문제는 관광산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GRDP의 상승이 도민 경제에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신혁명으로 불리워지는 “올레”의 개장은 2007년에 이루어져, 개장당시 3000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2009년 25만명, 2011년에는 100만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올레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제주도 전체관광객수의 증가가 막바로 GRDP성장으로 이어지는 않았다.¹⁾ 기대대로라면, 올레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 시점에 GRDP의 성장또한 가파르게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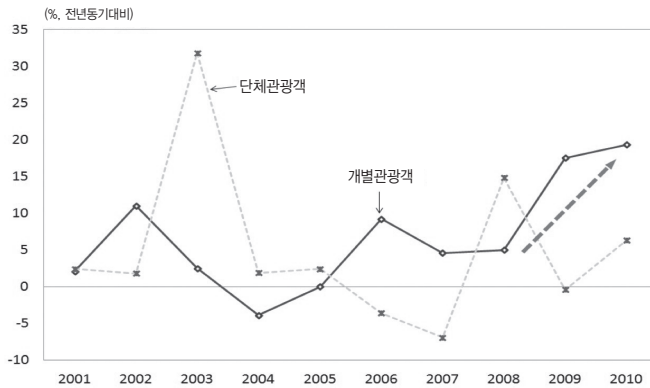
〈그림1〉 전국과 제주도의 실질GRDP성장을 추이와 올레관광객증가추이



1)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지금까지는 해외관광의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해외관광경기가 좋아지면, 제주관광경기는 악화되고, 해외관광경기가 나빠지면 제주관광경기는 좋아지는 상황을 반복하여 경험해왔다. 우리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GRDP상승률이 전국의 GRDP상승을 초과하였던 때는 거의 모두 외부적 요인때문이었다. 2000년에는 9.11테러로, 해외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대체재로 선택하였고, 2001년에는 환율이 1300원대로 고환율로 인해 해외관광이 위축된 시기였다. 그이후 2007년에는 글로벌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의 발생으로 해외관광이 또다시 위축된 시기였다.

이런 현상은 왜 벌어졌는가? 일단은 최근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의 관광패턴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데에 그 이유가 있다. 최근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은 여행사를 이용하는 단체관광객대신, 인터넷으로 필요정보를 찾아보고, 직접관광하는 개별관광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의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이후부터 단체관광객은 감소세인 반면, 개별관광객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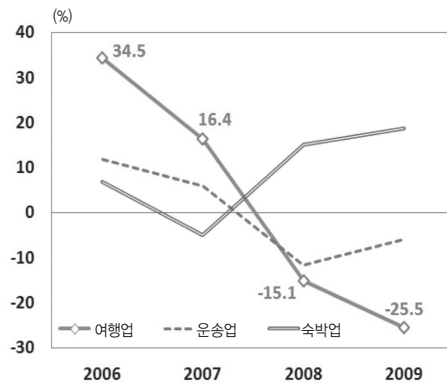
〈그림 2〉 제주도 입도관광객의 단체관광객, 개별관광객의 변화추이



출처 : 정수연, 제주 관광산업의 역내경쟁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p. 12

개별관광객들은 단체관광객들과 달리, 여행사를 통하지도 않으며, 전세버스 대신 렌트카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업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음의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행업은 계속해서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고, 운송업 또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림 3〉 제주 관광산업 주요 업종별업체당 매출액 증가율 추이



출처: 정수연, 제주 관광산업의 역내경쟁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p. 12

올레관광객들은 대부분 개별관광객이며, 제주도의 여행업체나 운송업체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관광소비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의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도내 숙박업 중 관광호텔은 최근 객실점유율 9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관광객의 양적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듯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업종별로 그 호황을 고루 누리지 못하고, 일부업종에만 국한됨으로서 기대했던 것만큼 제주도의 GRDP상승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즉,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단체관광객만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개별관광객들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관광산업은 다시금 고부가가치화하여 GRDP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악재가 우리 제주관광의 호재로 작용하여 해외관광대신 제주관광을 택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관광보다 더 매력있는 관광상품으로 거듭날수있다면, 우리는 해외경기와 무관한 안정적인 부가가치 창출원으로서의 제주관광산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관광산업 이외에도 또다른 안정적인 부가가치창출원을 가지고자 한다. 관광산업외에도 우리 제주도에는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축산업과 2차산업으로서의 제조업, 그리고 관광산업외의 서비스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의 고른 균형은, 제주도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제주도민들의 고른 고소득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주도는 관광산업 외의 또 다른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제주도의 또다른 가능성 : 한국의 소피아앙티폴리스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현재 중앙정부의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을수 있는 경쟁력있는 자원이다.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은 멈추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관광산업이외에도 제주에는 또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주도정은 오래전부터 제주도에 IT와 BT산업을 육성하는데에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제주도가 가진 청정자원 즉 조릿대, 감태 등의 자연자원들과

청정한 물을 이용하여 BT산업이 육성되어왔고 IT산업 또한 가격경쟁력을 가진 여러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는 미약하지만, 이 소수기업들이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될 것이다. 단순히 이 기업들이 제주에 존재하기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소수기업들이 미래에 지식기반산업 네트워크의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소수의 기업들을 주목해야한다.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로서의 제주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관광자원과 청정한 자연환경, 독특한 탐라문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타지역으로부터 이주한 기술집약기업들과 네트워크할수 있는 소기업들의 존재는 제주도가 가진 창의적 인재들의 지식집적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플로리다(2002)의 창조도시론을 보면, 창조계급은 과학과 엔지니어링, 건축과 디자인, 교육, 미술,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는데 창조계급은 관용성이 큰 환경, 다양한 인구구성, 다문화, 활발한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도시를 선택한다고 한다. 플로리다의 창조도시론에 가장 적합한 도시는 대한민국내에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도에는 이미 DAUM을 비롯한 지식기반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이주해왔고, 향후 이주기업은 더욱 많아 질 것이다. 특히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성공은 제주도의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서의 창조도시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4〉 제주도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화를 위한 요인들



출처: 정수연, 초광역개발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광역경제권 TF팀 전문가포럼,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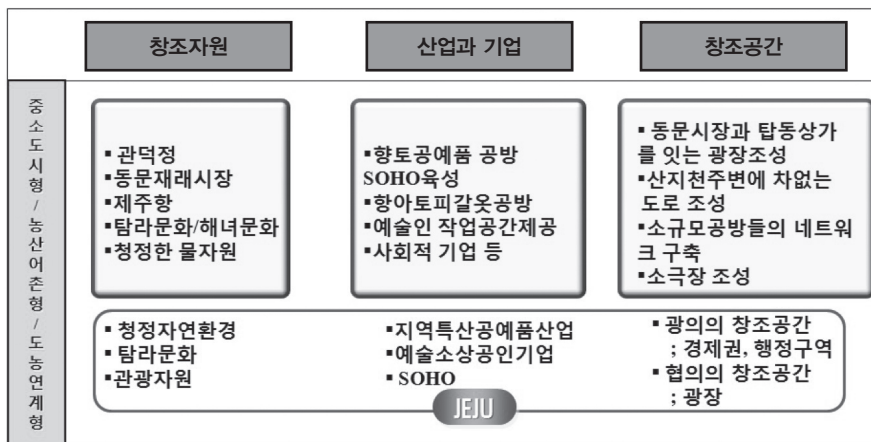
지식기반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인 “창의적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 청정자연환경외에도 입지이전에 동의하도록 만드

는 몇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지식기반산업의 기업이 제주에 입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창의적인재들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 요인들은 주거, 교육, 보육, 의료, 교통이다.

창의적 인재들이 제주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주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제주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주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주거지마련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시설과 보육시설,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이 교통과함께 정주환경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문화자원이다.

프랑스의 성공적인 지식기반산업집적지로 평가되는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문화”이다. 제주도에는 육지부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탐라문화”가 존재하지만, 탐라문화는 아직까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탐라문화가 고부가가치화 상품이 될수 있도록 상품화하는 방법을 고안함과 동시에, 소비가능한 문화자원들을 제주도경제에 결합시키는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림 5〉 제주지역의 창조공간으로서의 재배치 안



출처: 정수연, 제주지역발전과 당면과제 : 창조지역육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전문가 포럼, 2009, p.8

예술소상공인들을 제주시 일원에 집적시켜, 창조공간화하고(그림 7참조), 런던의 코벤트가든²⁾과 같은 관광자원화하면, 제주도에는 “소비할 수 있는 상품

2) 런던의 코벤트가든은 거리에 가득 들어찬 고풍스런 극장에서 공연되는 완성도 높은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이 단순히 눈만 즐거운 관광에 비하여 훨씬 높은 만족도의 경험을 제공한다(윤선영, 2006, p. 9). 코벤트가든은 전통 재래시장이라는 지역특화자원과 공연등의 문화자원을 결합하여 탄생한 대표적인 창조공간이다.

으로서의 문화상품”이 생기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관광호황이 불러들인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공간에 모여, 문화자원을 소비하고, 인근의 재래시장에서 제주의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관광산업의 GRDP증가효과를 배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림 6〉 제주의 코벤트 가든 조성안



출처: 정수연, 제주지역발전과 당면과제 : 창조지역육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전문가 포럼, 2009, p.10

지식기반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제주에 이주하여 집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제주도의 소규모기업들은 이들 기업들로부터 기술이전효과를 누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사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기업들이 매출액 증대효과를 누리고, 이주기업들과 함께 고용을 창출하면, GRDP 증가효과와 함께 제주도의 도민들은 관광산업외에도 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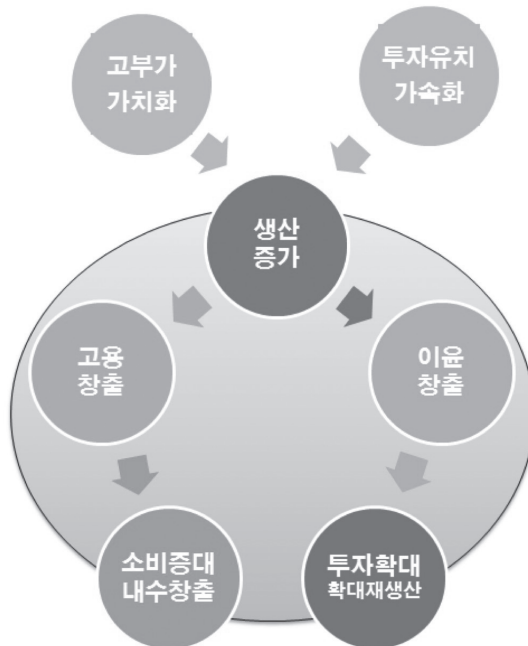
4. 정책은 어떠해야하는가?

(1)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모든 정책들은 효과가 미약하다. 제주도의 GRDP를 증가시키기위한 모든 정책들은 반드시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우리는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여러 정책들이 실패한 사례들을 알고 있다. 산업차원에서 고안되지 않은 일자리창출방안은 “인턴”의 양산이었고, 이는 기업에게도 반갑지 않은 비용으로, 청년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되어 정책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오로지 산업그자체, 그리고 산업과 산업의 연관관계들에 주목하여 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 GRDP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고부가가치화하여야 하고, 제주도의 기업들이 소규모에 소수인것을 감안하여, 투자유치를 가속화하여 기업수를 증대시켜야 한다. 기업들의 생산이 증가되고, 이윤과 고용이 창출되고, 그것이 다시 투자확대로 연결되어 기업규모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된 도민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대되고, 그에 따라 지역의 도 소매업이 활황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8〉 제주도의 GRDP상승을 위한 선순환구조



즉, 제주도의 고용창출이 증대되기를 원한다면, 기업에게 고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유치를 가속화하여 제주도에 기업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고용이 몇명 창출되었는가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항들을 몇개 개선하였는가를 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GRDP를 상승시키고 싶다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얼마나 많이 청취하였고, 기업들의 문제를 몇개나 해결해주었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모든 산업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산업은 연관되어 있다. 이는 산업의 GRDP를 증대시키는 것은 단순히 특정산업을 지원한다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GRDP를 상승시키기위한 노력은 되도록이면 연관산업들에 대해 함께 이루어져야만 더 큰 시너지효과가 있다. 앞서 언급한 제주도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문화산업, 부동산산업(주거환경), 교육서비스업(교육환경)에 대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유치활동이 MOU에 그치고, 홍보건수로만 그친다면, GRDP상승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나 관광산업, 문화산업, 부동산산업(주거환경), 교육서비스업(교육환경)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이 개선된 환경들이 기업유치활동시에 홍보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GRDP상승은 가시화될 것이다.

또한 외지기업들을 유치할 때에는 그 기업들의 전후방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 기업만을 이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타겟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하는 상류기업, 그리고 유치타겟기업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고객기업인 하류기업을 함께 이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함께 이전할수 없다면, 제주에 이전하고나서도 각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들과의 비즈니스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제주도 외 기업들이 제주도로의 이전을 꺼리지 않고, 제주도가 진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3) 기회비용적 사고로 접근하라

제주도의 GRDP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안할 때에 정책가는 비용편익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이 정책을 적용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편익은 얼마인가를 검토한 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책시행에

비용이 편익보다 과다하면, 정책가는 정책수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편익을 경제학적사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계학적 사고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편익만으로 정책수행을 결정하면, 대부분의 정책은 거꾸로 가기 마련이다.

제주도의 컨벤션센터는 오래전부터 적자로인해 도민의 비난을 받아왔다.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컨벤션센터의 일부공간에는 면세점이 입지하였다. 그러나 적자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이 조치는 컨퍼런스의 전시공간을 잠식함으로써 천명이상의 대단위 고부가가치 국제회의 유치에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회계학적 편익에만 주목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편익을 상실한 것이다. 사실상 컨벤션센터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유치한 회의에 대해 많은 편익과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컨벤션센터는 적자를 볼 지언정, 제주도민사회는 고부가가치 회의관광객들을 통해 큰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이 제주경제에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제주컨벤션센터에 전시공간을 확충하는 것의 기회비용과 면세점을 확충하는 것의 기회비용을 서로 비교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면, 제주경제는 더 많은 GRDP상승을 누렸을 것이다.³⁾

(4) 단기적 방안이 아닌 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라

단기적 방안들은 GRDP의 상승을 가져올수 없고, 오히려 GRDP의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GRDP상승에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건설업이다. 그러나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건설업은 중국에는 GRDP를 상쇄한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박물관을 건설하면, 일시적으로 건설업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가고, 건설사가 이윤을 누리게 된다. GRDP는 상승한다. 그러나 박물관에 입장객은 없고, 종업원 월급 등 유지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이 박물관의 적자는 제주도 GRDP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대부분의 단기방안들은 성과위주로 정책이 평가될 때 나타난다. 재정소모적인 단기방안들을 방지하려면, 공무원에 대해 숫자에 근거한 양적평가, 성과위주평가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장기적 방안들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그것은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들이기때문에 도정 뿐 아니라 도민들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사이기 때문이다.

3) 현재는 이러한 손실에 주목하여 제주컨벤션센터에 전시공간을 확충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긴 하나, 제주도의 관광객유치에 기여할수 있는 역할을 컨벤션센터가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컨벤션센터의 일정정도 의 적자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역할을 재정립해주어야 한다.

제주도 기업들을 위한 물류제도 개선, 육지부시장개척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기업대상 마케팅교육, 제주도내 스타기업의 육성등과 같은 것들은 단기에 그 성과를 독촉해서는 곤란하다. 정책의 효과는 아주 오랜기간동안의 투자가 있어야만 나타나며, 이러한 정책들은 제주도의 사회간접자본을 육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제주도의 물류산업은 현재에는 소수기업들만이 혜택을 보는것같지만, 물류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 물류산업은 다른 제주도기업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대규모화를 이루어낼 기간산업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대상 마케팅교육은 당장은 기업매출증대효과가 미약할 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타 기업들에게 마우스 투 마우스 효과로 지식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져와 제주도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스타기업의 육성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처럼 보일지라도, 스타기업의 성공은 제주도의 다른기업들에게 물류비용절감, 생산비용의 절감, 제주브랜드의 강화등을 통해 매출액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스타기업이 성공하여 대규모화되면, 제주도의 육지부 판매물류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는 물류수송비용단가를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스타기업의 존재가 전국시장에 알려지면서, 제주도기업의 가능성이 전국에 알려지고, 기업이전은 가속화될 것이며, 제주도기업의 제품을 원하는 육지부 바이어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명심하여야 할 것은 GRDP를 상승시키기 위한 단기적 방안은 단지 몇개 기업만의 이득을 갖다줄 뿐이지만, 장기적 방안은 보다 많은 기업들의 이윤을 창출하며, 그 이윤들은 산업의 연결고리속에서 확산되고 제주경제 곳곳으로 확대재생산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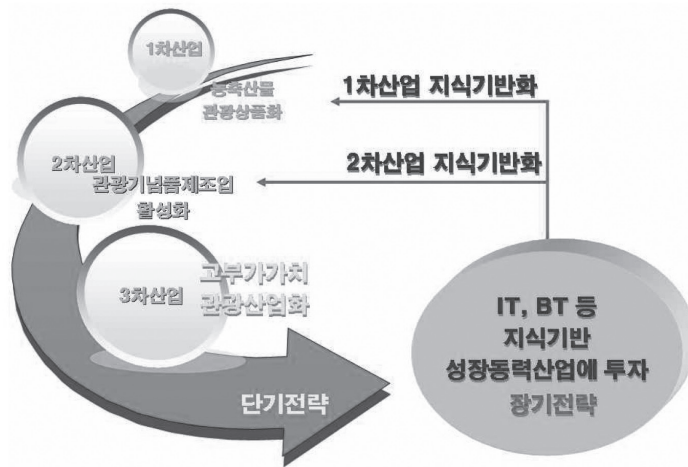
5. 글을 맺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은 제주도이다.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폄하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제주도를 사랑하며, 제주도에 살고 싶어 한다. 입지이전의 가능성, 이주민을 통한 인구백만달성의 가능성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가장 작게 투입하여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다. 청정자연환경과, 관광자원, 느낌의 미학, 공동체의식

이 살아있는 문화자원들이 제주도의 자원들이다. 이 자원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키고,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가 바로 제주도의 공무원, 학계, 그리고 중앙정부의 과제이다. 제주도의 성공적인 발전은 대한민국의 고부가가치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 또한 당위성이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일차적으로는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목표를 두고, 중앙정부의 재원조달에 용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입장에서는 제주도 관광산업지원에 근거없는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있어 다른 산업보다 관광산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타 산업으로의 연관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식기반산업, 즉 창조기업이 제주도로의 입지이전매력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수연(2009), 신정부 광역경제권정책과제주경제의 대응방안, p.15

나아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제주도의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할수 있도록 오염이 없는 지식기반산업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된 입지이전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 입지이전혜택이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져야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입지이전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식기반산업 중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서비스업의 고용창출효과를 감안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주도가 주목하여야 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분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지식기반서비스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631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63111 자료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58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5912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59120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12 전기통신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1210 유선통신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1220 무선통신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1230 위성통신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2921 측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922 제도업
61220 무선통신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61230 위성통신업	72924 지도제작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732 전문디자인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62090 기타정보기술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무엇보다도, 육지로부터 이전한 기업들이 제주도내 토착기업들과 어떻게 네트워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기술우위기업들이 제주도에 이전할 때 제주도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고용창출만이 아니다. 바로 제주도내 토착기업들이 기술이전효과를 누려 대규모성장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화된다면, GRDP는 처음에는 완만히 상승할 것이나, 일정시점을 지나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JDI**

***참고문헌**

윤선영, 문화를 통한 도시가치 창출전략, 생생목요토론회, 2006
 임준홍, 중소도시 재생정책방향과 추진계획, 에코타운 조성 범부처세미나, 도시환경연구센터, 2009.1.29
 정수연, 제주 관광산업의 역내경쟁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1
 정수연, 초광역개발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광역경제권 TF팀 전문가포럼, 2009
 정수연, 제주지역발전과 당면과제 : 창조지역육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전문가포럼, 2009
 정수연, 신정부 광역경제권정책과제주경제의 대응방안, 2009